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9호 HYUNBULNEWS.COM 2026년 10월 28일(음력 9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한중일 불교계 "자타불이로 세계평화"

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10월 20~22일, 경주 불국사 일원
"자비 · 지혜 함양" 공동선언문
내년 대회는 10월 일본 영평사서

경주=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한중일 불교계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이루고, 불교 수행을 사회적 자비행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 불국사 일원에서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수행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0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21일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봉행, 국제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에는 한중일 불교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부원장 월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등 종단협 소속 28개 종단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 135명으로 구성됐다.

중국에서는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을 단장으로 91명이, 일본에서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을 단장으로 43명이 참석했다.

삼국 불교계는 21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자신과 타인, 나아가 사회와 세계를 이롭게 하는 화합과 상생의 길을 향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중일 불교계의 황금 유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문화·가치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삼국 불교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와 국가 완성에 앞장설 것 △생명존중과 생태가치를 소중히 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최선을 다할 것 △불교 수행 가치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통해 마음 평화와 인류 공동의 행복에 기여할 것 △삼국 불교계의 우의와 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종교 간 대화로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이날 열린 학술강연회에서도 삼국 불교계는 수행이 개인의 마음을 닦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 자연을 이롭게 하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주목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부회장)는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불교의 사회적 기여와 연결해 수행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깨달음을 중생을 위한 실천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중국 측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자오청 스님은 '수행의 빛으로 인간 세상을 비추다'를 주제로 불교 수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로 화합을 꼽았다. 특히 대승불교의 '나 자신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는 정신을 화합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제시했다.

일본 측 천태종 대승사 주지 코미나미 쿄카쿠 스님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일상에서 정진하며 진정한 보살을 지향하고, 이타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청정한 불국토를 건설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내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영평사 일대에서 열린다. 세부 일정은 내년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예비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지구촌 곳곳에 평화 깃들길" 한중일 불교계가 경주 불국사에 모여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발원하고, 갈등과 기후위기 등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것을 다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이사장 타케 카쿠쵸 스님)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이틀 차인 10월 21일 불국사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삼국 불교계가 각국의 전통 의식에 따라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고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다. 경주=김내영 기자

"열암곡 마애불, 국민 마음 평안 성지로"

조계종 38대 집행부, 마애불 참배
진우 스님 "바로 모시기에 총력"
환경 조성 관계 기관·불자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38대 집행부가 10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했다.

조계종 제38대 집행부가 10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며 국민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고 새로운 임기의 출발을 부처님 전에 고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원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동시에, 열암곡 일대를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성지로 가꾸겠다는 원력을 천명했다.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700년 불교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 K-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깊은 저변"이라며 "37대 총무원장 취임 당시 첫 공약이었던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를 여러 난제로 온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지만, 38대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간절한 결심을 다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열암곡 성역화가 곧 국민의 평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에 올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산적한 국가적 어려움 속에 국민의 스트레스와 불행 지수는 매우 높다"며 "이는 다른 나라보다 강한 '집착'에서 비롯된 고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년 동안 누워 계신 부처님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행복하겠는가"라며 "어느 나라가 성인을 이대로 방치하겠느냐. 이는 불자와 국민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만약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곳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성지로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에 참석 대중도 한마음으로 뜻을 같이했다.

집행부는 원진영 주임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오랫동안 엎드려 계셨던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심으로써 나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목소리로 기원하며 생명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참배는 제38대 집행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첫 행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문화유산 복원을 넘어, 천년 유산을 매개로 현대인의 고통을 치유하고 미래 불교의 새로운 구심점을 세우겠다는 종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37대에서 시작된 입불 원력이 38대 집행부를 통해 '국민 평안을 위한 세계적 성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확장됐다.

현장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정문 스님, 포교부장 정경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재무부장 여학 스님, 조계종연구소장 광전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 등 주요 부·실장 스님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총무국장 구산 스님, 기획국장 상준 스님 등 국장단과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은 "현장 진입로를 올라와 보니 대중이 참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길을 잘 정비해 두었다"며 환경 조성에 힘쓴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공단, 경주시 등 관계 기관과 그동안 현장을 찾아 기도해 준 불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단기출가학교

2026년 11월 18일(수) ~ 24일(화) / 6박 7일

대상 및 인원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 생활이 가능한 20~60세 남여 각 10명
참가비 35만원
접수 방법 온라인 : 범어사 홈페이지 https://www.beomeo.kr
이메일 : beomeosa@daum.net
방문우편 : 부산시 금정구 범어사로250, 범어사 포교국
문의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범어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14교구본사 금정총림 범어사

'오늘, 출가합니다.'

